

누정제영시와 고지도에 투영된 청심루와 여주팔경의 경관구조

노재현* · 박태희**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Cheongshimru and Landscape Structure of Yeosu-Palkyung in Old Poems and Map

Rho, Jae-Hyun* · Park, Tae-Hi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reviewed the content and the meaning of the present Yeosu Palkyung(eight scenery) through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Palkyung poems, old maps and paintings, and classic materials transmitted in Yeosu area, and investigated the landscape structure of the area around the Cheongshimru(淸心樓: pavilion).

On the other hand, many Palkyung poems and Noojeongjeyong(樓亭) poems illustrating the Cheongshimru as the view point or the objective have clarified the scenic excellence when the Cheongshimru is the view point. The Yeosu Palkyung viewed from the Cheongshimru was described as constructing all around allocation structure, and six scenes are categorized as a distant view of the visual influence while the 7th scene Ireungdogyeon and the 8th scene Pasagwau are a psychologically influencing landscapes. The panoramic composition of the Yeosu Palkyung at the Cheongshimru is interpreted as the Seunggyeong distribution considering Palchaejgyeongsae(八采之景色), where main viewpoint is the Cheongshimru and the distant landscape is Paldaejangrim. The reputation of the Cheongshimru, the central place of the Yeosu Palkyung, is confirmed by the technique of scene processing describing a various way of illustrating landscapes such as near view, distant view, pulling view and collecting view.

The restoration of Cheongshimru and Paldaesup(八大藪) currently undertaken is the essential business for the full recovery of the Yeosu Palkyung, which will be not only for physical restoration but also for the shortcut to revitalize the history and the spirit of Yeosu. Furthermore, the business direction should be reconsidered to truly understand the meaning, the value, and the structure of the Yeosu Palkyung to ensure the pursuit of the sustainability aiming at the project "Local attractions", one of the Namhangnag Four rivers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ey Words : Yeosu Palkyung, Landscape Structure, Cheongshimru, Paldaesup, Yeogang(River)

국문초록

여주지역에 전래되는 팔경시, 고지도와 옛 그림 그리고 고문헌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청심루를 중심으로 한 여주팔경의 경관구조를 고찰하였다. 청심루를 시점 및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팔경시와 누정제영시를 통해 청심루의 조망적 탁월성이 확인된다.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여주팔경은 사방 포치구조를 이루고, 6개경은 원경의 시각적 영향권으로 분류되며, 제7경 '이릉두견'과 제8경 '과사과우'는 심리적 영향권내 경관이다. 청심루에서 펼쳐진 여주팔

* Corresponding Author : Park, Tae-Hi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shin University, Jeonnam 520-714, Korea.
Phone : +82-61-330-3342, E-mail : phouse@dsu.ac.kr

경의 구도는 ‘팔채지경색(八采之景色)’을 염두에 둔 승경 배분으로 보이는데, 이 때 주시점은 청심루이며 원경(元景)은 팔대장림으로 추정된다. 청심루에서의 경관처리기법은 근경과 원경, 읍경(挹景)과 취경(聚景) 등 다양한 경관 수렴방식(收斂方式)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여주팔경의 요처(要處)인 청심루의 위상이 재차 확인된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심루와 팔대숲의 복원이야말로 여주팔경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절실한 사업이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복원의 속성을 넘어 여주 역사 더 나아가서 여주의 얼을 되살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더불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의 남한강 주요 사업인 ‘지역명소[景] 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해서는 여주팔경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기틀 아래 사업방향이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주제어 : 여주팔경, 경관구조, 청심루, 팔대수, 여강

I. 서론

팔경시와 고지도에 표현된 경관의 모습이야말로 지역과 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공유된 문화의 산물이며, 정치와 권력의 반영임을 구체적으로 시사하는(이진호, 2008; 양보경, 2009) 귀중한 근거이며 확장자료이기도 하다. 여주팔경의 제7영으로 등장하는 청심루(淸心樓)는 여강변에 조성된 여주목객관 북쪽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소실되어 그 복원의 필요성과 열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누정은 승경의 요처에 자리하여 상자연의 풍류를 극대화하고 있는 장소로(남동걸, 2004), 특히 여주팔경 조망의 시점인 청심루는 ‘눈돌리기’만으로 산수자연을 양관(仰觀), 부찰(俯察), 원망(遠望)하는 특정 장소성을 갖는 누정이었음은 여러 사료나 시문을 통해서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여주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위치한 청심루터에서는 여강 상류의 신록사 동대가 아늑하게 보이고, 서쪽으로 영릉의 울창한 송림과 강 아래 오고가는 뚝단배들이 연속적으로 전개된다. 청심루는 여주팔경 조망의 거점으로, 시인목객들의 남한강 순행시 반드시 둘러보는 명소였다¹⁾.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 청심루의 위치를 “객관(客館)을 강을 베개 하여 지었다”라 한 것으로 보아 강정(江亭)으로서의 위치적 특성이 잘 표현되고 있다. 또한 고려 말 문신인 허옹(許翕)의 시에는 ‘여강루(驪江樓)’를 청심루를 대신한 표제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http://blog.daum.net/kjga>) 여강을 대표하는 누정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45년 8월 22일 군수관사의 화재로 인해 청심루 서쪽 5개 교실이 소실될 때 불이 옮겨 붙어 청심루는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은 여주여중고 옆 여주문화의 거리에 1987년 12월 경기도에서 세운 청심루터 표지석만이 보일 뿐이다. 여주팔경의 연원 찾기가 말로 여주의 역사와 전통적 경관구조를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서(노재현, 2011)라 볼 때 여주팔경의 연원과 의미를 찾고 되새기는 작업의 일환으로 청심루의 명확한 경관구조와 기능의 파악은 청심루 복원 더 나아가서 여주팔경의 온전한 의미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현재 여주를 흐르는 남한

강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²⁾, 그 한편으로는 여주 팔경의 무대인 ‘팔대수’와 ‘청심루’ 복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행 연구(노재현, 2011)를 통해 이미 여주팔경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특성 및 여주팔경의 특성과 시간 흐름에 따른 여주팔경의 전승과정을 되짚어 본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여주팔경과 청심루의 관련성 및 경관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주 팔경의 경물 포치를 해당 고지도 상에서 비정(比定)하고 관련 한시 및 고지도 그리고 옛 그림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조선 후기 여주 팔경의 포치(布置)와 공간 틀을 재구(再構)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청심루에서의 조망구조와 경관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주의 대표적인 누정(樓亭)이자 승경의 요처인 청심루 복원의 함의와 필요성을 재고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분석 및 해석자료

본 연구의 비교분석 및 해석의 중심 객체는 청심루와 여주팔경이며, 분석 및 해석 자료는 청심루의 풍경을 읊고 묘사한 팔경 제영시·고문서·고지도와 해제 내용·옛 그림 등이다. 연구자료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팔경제영시

여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시 해석의 기본 텍스트로는 여주 지역의 팔경제영시를 엮어 풀이한 이현구 편역(1991), 여강시축(麗江詩軸)과 조성문 편역, 여주문화원(2002) 자료를 이용하였다.

2) 규장각 소장 고지도

본 연구에 이용된 고지도는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광여도와 여지도·지승·팔도군현도(1872년 지방도)의 여주목지도·

대동여지도 등이다.

3) 검재와 지우재의 옛 그림

분석대상 옛 그림은 검재 정선의 청심루도·신록사도 그리고 지우재(之又齋) 정수영(鄭遂榮: 1743~1831)의 한·임강명승도권(漢·臨江名勝圖卷)의 일부인 세부도(細部圖)로, 여주읍 내 부분의 청심루(淸心樓)와 내외아(內外衙), 여주읍치 그리고 신록사와 동대탑(東臺塔) 부분을 활용하였다.

4) 김창흡의 단구일기

단구일기는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³⁾이 36세이던 1688년 3월 4일 덕포에서 출발, 35일간의 남한강 여행길의 감흥을 기록한 일종의 기행 선유록(船遊錄)이다. 주로 뱃길을 이용해 여주→충주→단양→제천→영월에 이르는 여정을 일기 형식으로, 특히 금사와 청심루와 신록사 등 여강 일대 풍물과 조망적 특성이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삼연집 권4의 기록을 고찰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여주팔경의 무대 청심루

정수영의 한임강명승도 중 청심루 내외아(일부)는 강변을 따라 펼쳐진 여주 읍내의 정경이 수평 시각으로 청심루와 관아의 건물과 주변 그리고 촌락이 담채로 묘사되어 있다. 청심루는 성종과 현종이 세종대왕릉에 친행하면서 쉬었던 곳이고, 또한 이곳을 무대로 과거를 치렀던 유서 깊은 곳이었다. 또한 청심루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객관 내부에는 많은 노거목 등 정원수가 남아 있었음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한다. 그림 1의 정



그림 1. 정선의 청심루도
(자료: 검재 정선, 종이에 수묵, 35.3×33.5cm, 간송미술관 소장)

선의 청심루도 또한 상록수와 낙엽수 노거목이 혼재된 식재현황이 잘 표현되고 있다. 청심루를 중심으로 육중한 수간(樹幹)을 보이는 노거수가 관아 건물과 조화되고 있고, 그 표현 또한 매우 다채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지도로 살펴본 청심루

해동지도는 영조10년(1734년) 회화식으로 작성된 비변사의 도별 군현지도첩을 원도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한 지도이다(김기혁, 2007). 산지보다는 수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으며,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지류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고을 관아가 있는 읍치의 서쪽에는 영(英)·령릉(寧陵)이 있는 북성산(北城山)이 주산이며, 고을의 진산으로 묘사되고 있다. 읍치에는 동헌, 내아 등의 관아 건물이 그려져 있고, 그 중심에는 청심루가 자리 잡고 있다. 청심루 좌우에는 노거수 두 그루가 대식(代植)되어 있다. 이는 12C 후반 고려시대 문인이자 지도 첨의부사를 지낸 주열(朱悅: ?~1287)의 시에 언급된 “쌍으로 선 나무”라는 어구의 실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지도에는 파사성과 강 건너 맞은편의 산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취락과 경승들로 금사팔경이 구성되어 있다. 해동지도에서는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경관인 양 벽사의 유래가 된 신록사의 다층전탑인 동대(東臺)가 멀리 조망되고, 서쪽으로 영릉의 울창한 송림과 여강 아래로 뚫단배가 부감되고 있다. 분석 대상 모든 고지도는 여강에 인접한 신록사, 팔대장림, 마암 등이 회화적 기법으로 묘사되고 있다. 마암은 신록사와 함께 상징적으로 황려를 잠재운 곳으로, 여주읍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의미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분석지도에서는 모두 청심루에서 영릉 방향으로 바라보이는 여강 일대의 경관은 숲과 강 건너 제방을 따라 길게 이어졌을 팔대수의 줄숲, 그 너머의 연촌, 그리고 여강을 오가던 나루터의 배가 어우러져 있다. 또한 들판과 맞물려 이어진 준령은 멀리 용문산으로 이어지며, 그 중국에서는 파사성터 일대의 연봉과 맞닿아 있다. 지도상 제4경인 팔대장림(八大長林)의 주대상 팔대수는 길이가 7리가 되어 바다 같았다고 하는 큰 숲이었으나, 정조대왕 때 벌채가 이루어져 농경지로 개간되었다(http://land.culturecontent.com)고 전해진다.

3. 여주팔경의 시각구조와 청심루

1) 청심루의 입지 장소성

여주팔경 제7경으로 등장하는 청심루는 여강변에 조영된 누대로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정자이며,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 등 고려의 대학자들과 인연이 깊은 정자로 유명하다. 청심루는 동국여지승람뿐만 아니라 택리지(擇里志)나 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과 같은 옛 문헌에 항상 등장할 정도로 이 지역의 명승이었다. 현재 여주초등학교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한 청심루터에서는 여강 상류의 신록사 동대가 아늑하게 보이고, 서쪽

으로 영릉의 울창한 송림과 강 아래 오고가는 뚝단배들이 연속적으로 전개된다. 청심루는 여주팔경 조망의 거점으로, 서울의 낙선정과 세검정, 광주의 청풍루, 파주의 화석정, 청풍의 한벽루, 남원의 광한루 그리고 제주의 관덕정과 더불어 시인묵객들의 남한강 순행시 반드시 둘러보는 명소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는 청심루의 위치를 “객관(客館)을 강을 베개 하여 지었다”라 한 것으로 보아 강정(江亭)으로서의 위치적 특성이 잘 표현되고 있다. 또한 고려 말 문신인 허용(許翕)의 시에는 ‘여강루(驪江樓)’를 청심루를 대신한 표제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http://blog.daum.net/kjga>) 여강을 대표하는 누정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청심루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광해군 9년(1617) 여주군수 김용(金湧)이 증진하였으며, 또한 숙종대왕 어제(御製)의 “독동국사(讀東國史) 감고려우정언이존오충절(感高麗右正言李存吾忠節) 수작찬(遂作贊)”이 걸려 있었다. 이는 우암 송시열이 숙종 8년(1682) 효종의 능이 있는 여주로 내려와 이듬해까지 머물렀을 때, 청심루에 올라 효종대왕릉을 바라보며 여러 편의 시를 지어 큰 글씨로 청심루 현판을 새로 써서 걸어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조는 정조 3년(1779) 영·령릉을 전배하고 청심루에 올라 송시열의 충절을 기리고 별시를 치러 지역 선비들을 등용하기도 했다. 고종 7년(1870) 여주부사 이인응은 여주관아에 대한 대대적인 중건을 시작하면서 퇴락한 청심루를 수리, 중수 후 청심루중수기를 걸었다. 이후 1908년 공립 여주보통학교가 사립 개진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였는데, 1910년 4월 청심루가 있던 군청 객사를 수리하여 여주초등학교가 이전해 오며 따라 학교부지로 편입되었다(여주군, 1989). 그러나 불행하게도 1945년 8월 22일 군수관사의 화재로 인해 청심루 서쪽 5개 교실이 소실될 때 불이 옮겨 붙어 역사적인 건물은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은 여주여중고 옆 여주문화의 거리에 1987년 12월 경기도에서 세운 청심루터 표지석만이 보일 뿐이다(<http://www.ohmynews.com>).

그림 2의 팔도군현지도에서는 여주목을 중심으로 북성산 자락의 영릉과 능능이 묘사되고 있으며, 여강 북측에 신희사와 팔대수 남측에 청심루와 마암만이 뚜렷하게 부기되고 있다. 청심루는 해동지도는 물론 1872년 지방도, 여지도 등 고지도와 정수영의 ‘한임강명승도’ 등 옛 그림에도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예로부터 평양을 비롯한 유서 깊은 역사도시에는 유명한 누각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큰 숲이 조성되었다. 즉, 평양 연광정의 장림(그림 8 참조), 진주 축석루의 죽림, 밀양 영남루의 울림, 울산 태화루의 죽림 등의 예처럼 누와 숲이 하나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여 역사도시의 명소가 되었던 것이다. 여강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팔대장림으로, 청심루와 함께 여주의 대표적 경승지 역할을 하였다(장동수, 2006). 청심루의 조영시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려말인 13C 초기에 활동하던 이규보의 시에도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12C 후반 주연(朱悅: ?~1287)의 시에도 청심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



그림 2. 팔도군현지도 (자료: 서울대 규장각)



그림 3. 일제강점기의 청심루 (자료: 여주군지(1989) 김한동사진 재구성)

아 최소 800여 년 전에 지어진 정자로 추정되고 있다. 현 여주 문화원 사무국장이기도 한 조성문(2008)은 청심루 조영시기를 1235(6)년으로 유추한 바 있다. 그 근거로 고려시대 누정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당지역 관아나 사찰 부근에 세워지기도 했음에 비추어볼 때 후에 순경태후가 되는 여주 태생 김약선의 여식이 태자비로 간택되던 1235년 또는 그 이듬해인 1236년 충렬왕 탄생의 축하 의미로 청심루가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http://tja49.tistory.com/116>)고 보았다.

그림 4의 1872년 지방도를 보면 홍문(弘門)이라 표기된 홍살문의 그림이 보인다. 홍문 안쪽으로 문루(門樓)가 보이는데, 이것이 여주 관아의 외문으로 현 영월루이다. 1925년 여주 관아가 근대식 건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당시 신현대 군수가 ‘기좌제일루(畿左第一樓)’라 명명된 여주 관아의 문루를 현 위치로 옮기면서 ‘영월루(迎月樓)’라 하였다(구본만, 2011). 일반적으로 동헌에는 객사(客舍)가 결합되어 동헌 정청과 객사가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주 읍치의 동헌은 그림 5의 광여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채의 건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홍살문과 외문, 중문을 지나면 지방관이 정무를 수행하는 동헌 정청(東軒 正廳)이 위치하고 있다.

청심루(淸心樓) 또한 객사(客舍)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국왕의 위패를 모시기 위한 정당(正堂)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숙박하는 건물로 구성되는데, 이곳은 성종을 비롯하여 중종, 숙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임금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숙종



그림 4. 1872년 군현도에 묘사된 청심루와 팔대수 (자료: 서울대 규장각)



그림 5. 광여도에 표시된 청심루
(자료: 서울대 규장각)

의 어필이 걸려 있었다. 청심루 전면 여강 건너편에는 ‘廣一里, 長十里 八大戴’라는 글씨가 매우 과대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대수의 규모가 확인된다. 한편, 홍문 앞 연무당 앞뜰에는 매우 규모가 큰 연지(蓮池)가 그려지고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여도에서는 동헌 및 내외아의 어떠한 건물보다도 청심루의 형태와 규모가 매우 부각된 채로 기단 위에 표시되어 있고, 여주팔경의 제4경인 연탄귀범과 강 건너 제6경 팔대장림의 도열된 수림이 묘사되고 있다.

2) 청심루의 조망구조와 여주팔경

청심루는 여주팔경의 대상이자 청심루사경, 창기정십영의 시점이기도 하다. 청심루와 함께 많은 문인들의 시 속에 팔대장림, 신록사, 마암, 동대, 양섬, 제비여울, 이릉 등 주변의 절경을 함께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연 청심루는 여주팔경 최적의 조망처(신정일, 2010)이자 ‘대(臺)’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누정조에는 “읍내에 있는데 임장강(臨長江)을 굽어보며, 남쪽 건너편에는 치악(雉岳)의 광야가 동룡문(東龍門)에 아득히 넓고, 북쪽으로는 석벽(石壁)이 높이 솟아 있으며, 벽사의 그림자가 거꾸로 강 가운데 비친다.”고 표현되고 있음을 볼 때, 입암과 벽사까지도 청심루에서는 주요한 경관영향권이자 랜드마크로 조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아쉽게도 여주대교와 건물 등에 가려 조망이 쉽지 않다. 팔경시의 주요 대상물이자 시점이기도 한 누정은 경치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최승순(1989)은 단순한 승경이나 구조물이 아니고 시문이 배태(胚胎) 되는 곳으로 지역 전체의 문화경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박영주(2001)는 명승에는 반드시 정자가 있는 바, 바로 이 정자가 명승의 핵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흡수하고 전승시켜 왔다고 보았다. 따라서 누정으로부터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가 응축과 팽창을 통하여 문화적 자산을 형성해 온 것(이한길, 2009)은 자명하며, 그 중 대표적인 승경인 관동팔경으로, 조망의 중심이 되는 누·정·대는 승경의 대상이자 산수유람의 거점인 동시에 문학의 산실이기도 하였다(안계복, 2005).

그림 6과 같이 청심루를 시점으로 여주팔경의 조망구도를

여주목 해동지도에 재구성하였을 경우, 전면부에 3개경, 좌측부에 4개경, 우측부에 2개경 그리고 후면부에 1개경이 포치하는 구조를 보인다. 실제 그림 7의 다음(Daum) 지도에서 실제 조망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가장 근경의 팔대장림의 구지(舊址)까지의 조망거리 0.6km에서 가장 원경의 파사성까지의 조망거리 14.7k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권⁴⁾을 형성하고 있다. 총 8개 팔경 영향권 중 6개경은 원경의 시각적 영향권으로 분류되며, 제7경 ‘이릉두견’과 제8경 ‘파사과우’는 각각 3.9km와 14.7km의 대원경인 심리적 영향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2개경은 실제로는 청심루에서 시각적 조망은 불가능하며, 창각적·촉각적 분위기로 감지되는 권역내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청심루를 조망시점으로 한 여주팔경의 평균 조망거리는 약 4.95km로 매우 광대하다. 이는 여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파노라마틱한 지형경관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사지역의 파사과우를 배제하였을 경우는 평균 1.4km의 경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청심루 전면에 장대하게 늘어선 줄숲의 장관 또한 여주팔경을 구축하는 원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양 영광정에서 대동강 너머 전면으로 조망되는 장림(長林)이야말로 물리·생태적 기능 이외에 이곳(This)과 저곳(There)을 구분짓는 매개경관이자 경관의 심도와 영역성을 강화시키는 시각적 요소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소실된 경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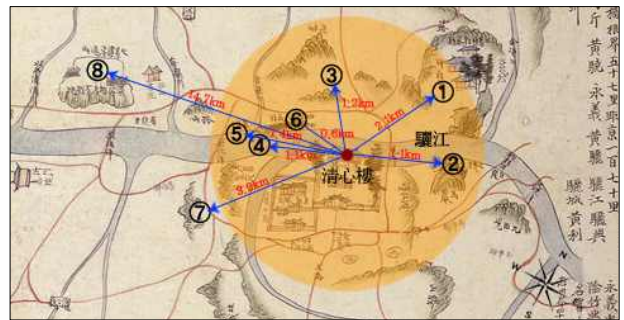


그림 6. 청심루를 시점으로 한 여주팔경의 도해(바탕지도-해동지도)
범례: ① 神勒暮鍾, ② 馬巖漁燈, ③ 鶴洞暮煙, ④ 燕灘歸帆, ⑤ 洋島落雁, ⑥ 八戴長林, ⑦ 二陵杜鵑, ⑧ 婆娑過雨
(자료: 海東地圖, 서울대 규장각)



그림 7. 여주팔경의 포치 현황
(자료: Daum 길찾기 지도)



그림 8. 평양 연광정에서 조망되는 대동강변의 長林
(자료: 傳 단원 김홍도, 練光亭宴會圖. 71.2×196.6m. 지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주팔경은 읍치팔경의 유형으로 보이지만 여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할되며, 예전의 읍치 생활권의 중심은 현 군청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읍치 내 특정 조망점을 대상으로 한 정자팔경일 확률이 대단히 높음은 선행연구 이후 몇몇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여강에 면한 일정 지점에서의 팔경시를 제영할 경우, 어떤 특정 방식에 따라 8개 승경을 배분하였을 확률이 높다. 이홍숙(2010)은 지명 특히 지명전설이 신화시대의 인식체계인 오방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중심을 핵심 축으로 생성된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우리의 고유어가 한자로 표기되거나 방언으로 전해오지면서 서사적으로 활용되어 지명전설이 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팔경 소표제 또한 ‘팔채지경색(八采之景色)’을 염두에 둔 승경 배분이 반영되었음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여주팔경에서도 발견되지만 팔경은 단순한 시각적 대상만이 아니라, 팔채지경색과 우주관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즉, 이는 천지인(天地人)의 삼원(三元)과 동서남북 중앙의 오행이 합쳐져 여덟 경치를 이룬 것으로 원경, 시경, 현경, 영경(靈景), 진경, 명경, 동경 그리고 청경이 그것이다⁵⁾(李叔還, 1979; 장정용, 2009). 이 경우 천지인 즉 해당 조망점에서 숙시각으로 바라본 하늘 아래 가장 가까운 지상경관을 원경으로 보 것이 타당하다. 현경(玄景)과 명경(明景)은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의 경관으로 각각 마암어등과 연탄귀범을 구분하고 시경(始景)은 가장 먼 풍경[遠景]이자 역사적으로도 삼국시대까지 연원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파사과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경(洞景)은 ‘학동리의 저녁밥 짓는 연기’가 되며, 영경(靈景)은 사자(死者)의 영역을 경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영릉과 녕릉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를 묘사한 이릉두견이야말로 적격이다. 또한 청경(淸景)은 ‘신록사에서 울려 퍼지는 청아한 저녁 종소리’를 묘사한 신록모종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다수의 국내 소상팔경시 중 평사낙안은 제1수의 자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시에 제4수의 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표제이다. 대부분의 팔경제영계급은 유학자로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출처진퇴(出處進退)의 고민이라는 갈등 모티프를 함의로 한 평사낙안을 첫머리에 배치하고 있음(전경원, 2006)에서 여강의 아름다움과 성리학적 귀착(歸着)을 상징하는 ‘낙안(落雁)’이야말로 팔경시의 주체인 문사계급에게는 진경(眞景)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경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경은 조망시점인 청심루 그 자체가 대상이자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여주팔경에서 청심루가 배제된 것을 볼 때 청심루 전면으로 조망되는 팔대수의 위용이야말로 원경(元景)이 됨이 마땅하다(표 1 참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숙정의 여강팔영 중 표제어 ‘청심루’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으로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경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심루의 누정기능은 ‘산수자연의 감상공간(남동걸, 2004)’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여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산봉의 모습과 파노라믹한 강변의 풍경들 그리고 조망 중심 청심루의 탁월한 전망성과 그 속에서 세상 시름을 떨칠 만큼의 풍광을 자족(自足)하고 있다. 청심루에서의 부감되는 조망구도는 근경과 중경의 강물과 산봉뿐만 아니라 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믹까지를 장대한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심루에서는 여주팔경의 적나라한 풍광이 다양한 구도로 펼쳐지며, 그 경관 처리 기법 또한 근경(近景)과 원경(遠景), 읍경(掘景)과 취경(聚景) 등의 다양한 경관 수렴방식(收斂方式)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광활한 전망을 통해, 지역의 승경을 끌어들이며 점거하는 취승(聚勝)의 의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청심루를 중심으로 본 여주팔경의 중심성

여주팔경	주대상 구분	착안시점	공간성		시간성		八采之景色에 따른 분류
			조망거리	조망방향	시각	계절	
1. 神勒暮鍾	寺刹景	고려	2.1km	右	저녁		淸景
2. 馬巖漁燈	巖景+生活景		1.1km	右	야간		玄景
3. 鶴洞暮煙	洞景+生活景		1.2km	前	저녁		洞景
4. 燕灘歸帆	江景+生活景		1.1km	左			明景
5. 洋島落雁	江景		1.4km	左			眞景
6. 八蔽長林	邑藪景	조선	0.6km	前			元景
7. 二陵杜鵑	陵墓景	조선	3.9km	後			靈景
8. 婆婆過雨	城郭景	신라	14.7km	左		夏	始景

표 2. 최숙정의 여강팔영 중 '청심루' 경관 분석

'청심루'		풀이	敍景			抒情
			조망대상	경관구조		
한시내용	구분			구도	처리기법	
小樓亦瀟灑	首聯	작은 루 매우 산뜻하고 깨끗한데	청심루	세부경관	近景, 淸景	
下挹長江水		아래로 긴 강물 끌어당기네	여강	俯瞰景	挹景	
江水去云云	頷聯	강물은 빙빙 돌아 흘러가고	여강	지형경관		
遠岫峙累累		먼 산은 겹겹이 우뚝 솟았네	산악	축점경관	遠景·聚景	
三方盡空闊		삼면이 모두 공활하여	일대 전망	파노라믹경관	環景	
一望渺千里		바라보니 아득한 천리로구나			遠景	
岳陽可包羞	頸聯	악양루(岳陽樓) ⁶⁾ 도 부끄러워 할만 하고	중국 제일의 名樓와 비교			최상의 조망
黃鶴堪懷恥		황학루(黃鶴樓)도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하리				
珠璣欄壁間	尾聯	주옥같은 글귀 벽 사이에 찬란한데	주련과 편액	세부경관	至近景	오랜 연륜
登觀淸塵滓		올라와보니 세속의 더러움도 깨끗해지네		심상경관		세속을 털어냄

설문우(薛文遇)의 ‘驪興淸心樓次韻(동문선 권15)’ 수련(首聯)과 함련(頷聯)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萬景森羅指點端 **은갖 경물 뽀뽀하게 끝을 가르키는데**
 登臨不覺屢回顧 **누각에 오르니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려 보네**
 長江西去赴蒼海 **긴 강 서쪽으로 흘러 푸른 바다로 가고**
 復嶺北來圍淺山 **겹겹 산들은 북에서 와 낮은 산을 둘러네**

세속의 공명을 다투지 않는 어부의 한취를 노래한 시 특히 함련에서는 청심루에서 보이는 원경의 묘사가 탁월하다. 이 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청심루조에 여주의 형승을 탁월하게 묘사한 글로 실려 있다(강석중, 2001). 또한 대동지지(大東地志) 누정조에 “청심정, 읍내에 있는데 임장강(臨長江)을 굽어보며, 남쪽 건너편에는 치악(雉岳)의 광야가 동룡문(東龍門)에 아득히 넓고, 북쪽으로는 석벽(石壁)이 높이 솟아 있으며, 벽사(壁寺)의 그림자가 거꾸로 강 가운데 비친다.”라는 표현 또한 유사한 맥락의 경관 표현이다. 또한 김창흡의 단구일기에서도 청심루에서의 조망이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김창흡은 청심루에 올라 신록사가 있는 마암을 보며 이색의 시귀인 ‘擘水功高馬岩石, 浮天勢大龍門山’(『신증동국여지승람』, 권7, 驪州牧)을 떠올리며 ‘마암한수(馬岩擘水)’를 연상한다. 또한 단구일기 ‘驪江,’ 권4에는 청심루에서 느낀 경관적 감회를 다음과 같이 시로 술회하고 있다(윤경희, 2004).

擊汰梨湖山四低 **이호로 노저어 가니 사방 산이 나지막하고**
 黃驪遠勢草萋萋 **여주는 멀리 보이고 풀만 푸르게 우거졌네**
 婆娑城影淸樓北 **파사성 그림자는 청심루 북에 있고**
 神鐘鐘聲白塔西 **신록사 종소리는 백탑 서쪽으로 퍼져나간다**
 積石波侵神馬迹 **적석에 부딪는 파도는 신마의 발자취 같은데**
 二陵春入子規啼 **이릉에 봄이 되니 두견새가 우는구나**
 翠翁牧老空文藻 **박은과 이색의 시문도 부질없구나**
 如此風光不共携 **이같이 좋은 풍광과 함께 하지 못하니**

이렇듯 시 속에는 여주팔경의 주대상인 파사성, 신록사 종소리, 선마의 발자취(마암), 이릉 두견 등이 열거되고 있으며, 함련의 “파사성 그림자는 청심루 북에 있고(婆娑城影淸樓北)” 구절로 보아 청심루를 중심으로 여타 경물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심루의 중심적 특성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집총간(1-240권)’에서 조선 건국 이후 18세기 중반까지의 누정제영시 중, 서울·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제영시를 잉태한 공간이 바로 청심루임(유호진과 우응순, 2004)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시문과 고지도 그리고 옛그림 속의 청심루는 여주팔경 조망의 탁월한 시점이자 여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승경을 가장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끽(滿喫)할 수 있는 중심점이자 압승지(壓勝地)임이 재차 확인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주지역에 전래되는 팔경시와 옛 그림 및 고지도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청심루를 중심으로 한 여주팔경의 시각구조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여주팔경의 의미와 경관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청심루 및 팔대장림 복원의 함의와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심루를 시점으로 하는 다수의 누정제영시를 통해 청심루의 조망매력성의 압권적 탁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구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서의 청심루의 위치 설명 등으로 보아 강정(江亭)으로서의 위치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허옹(許翬)의 표제어 ‘여강루(驪江樓)’와 설문우의 시 등으로 보아 청심루는 여강을 대표하는 누정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2. 청심루를 시점으로 조망되는 여주팔경은 사방으로 포치하는 구조를 보이며 조망거리로 볼 때, 팔수장림까지의 조망거리 0.6km에서 파사과우의 14.7k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다. 6개경은 원경의 시각적 영향권으로 분류되며,

제7경 '이릉두견'과 제8경 '파사과우'는 대원경인 심리적 영향권으로 감지되는 권역내 풍경이라 할 수 있다.

3. 청심루를 조망시점으로 한 여주팔경의 평균 조망거리는 약 4.95km로 매우 광대하며, 이는 여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파노라마적인 지형경관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여주팔경의 적나라한 풍광은 '팔채지경색(八采之景色)'의 경관구도를 염두에 둔 승경 배분으로, 그 원경의 시점이 청심루이며 대상은 팔대장림으로 추정된다.

5. 청심루에서의 경관처리 기법은 근경(近景)과 원경(遠景), 읍경(挾景)과 취경(聚景) 등의 다양한 경관 수렴방식(收斂方式)으로 전개되고 있음 볼 때 여주팔경의 다채로운 조망처 청심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작금에 여주지역에서는 '청심루 복원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여주팔경의 조망중심인 청심루 복원을 위한 발기인이 결성되는가 하면 여주 생태벨트 구축 필요성 측면에서 팔대수(팔대장림) 복원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는 등 문화생태자원의 발굴과 보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강 건너 여주팔경의 원경(元景)인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팔대숲' 또한 경기도 유일의 대표적 숲이었고, 과거 번성했던 여주의 으뜸 자랑거리였다. 따라서 청심루와 팔대숲의 동시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여주팔경의 온전한 회복은 물론 경관회복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단순한 경관회복의 속성을 넘어 여주의 역사를 되찾는 일이자 여주의 얼을 되살리는 일의 접점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주 여강 일원도 4대강인 한강의 분류로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의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수계별로 '수변생태공간·지역명소(景)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여주팔경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진정한 이해야말로 진정한 '강 살리기'의 접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주 1) 청심루에 올라 제영을 지은 시인묵객들은 이규보를 비롯하여 이곡, 이집, 정몽주, 이색, 김구용, 정추, 정자후, 설문우, 도원홍, 김종직, 최숙경, 서거정, 성현, 한수, 김안국, 이황, 주세붕, 서산대사, 유성룡, 노수신, 송시열, 홍심, 홍양호, 신광한, 권상하, 이병연, 이항로, 김좌근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약 200여 편의 관련시가 전해지고 있다(<http://www.dailian.co.kr/news>).
- 주 2) 이 계획으로 여주에는 수변경관 주요 거점 대상지로 여주 황포돛배, 단양쭉부쟁이, 여주 이포보, 영릉과 여주보 등 4개 거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강수계 8개소의 거점 중 50%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 전래경관의 훼손과 교란의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 주 3) 김창홍의 본관은 安東. 자는 子益, 호는 三淵, 시호는 文康이다. 金尙憲의 증손자이며, 金壽恒의 셋째아들이다. 형은 金昌集과 金昌協이다. 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형 김창협과 함께 성리학파 문장으로 유명했으며, 洛學派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 주 4) 노재현 등(2007)은 전북 임실의 팔경 구조 분석을 통해 조망권역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중경은 경관 지배적 영향권으로 약 0.5km까지로 보았으며, 원경은 시점을 중심으로 3km까지로 시각적 영향권으로 보았다. 또한 그 이상의 大遠景은 심리적 영향권으로 구분한 바 있다.
- 주 5) "八景, 言八采之景色也. 道經以三元五行爲八景【太上隱書八景飛經法】八景者, 分爲, 元景, 始景, 玄景, 靈景, 眞景, 明景, 洞景, 淸景也"
- 주 6) 중국洞庭湖에 있는 아름다운 누각으로 武昌 黃鶴樓, 騰王閣과 함께 중국의 3대 名樓로 불리고 있다.

인용문헌

1. 신중동국여지승람. 권7. 驪州牧(197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 김창홍. 삼연집(三淵集). 권4.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한국고전번역원. pp.165-167.
3. 동문선 권15.
4. 輿地圖書 여주목읍지.
5. 강석중(2001). 驪江을 한눈에 굽어보는 淸心樓.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 파주: 태학사. pp.114-121.
6. 구분만(2011). 고지도들 통해 본 여주의 官衙. 세종신문 여주포커스. 4월 7일자.
7. 김기혁(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정신문화연구. 30(3): 119-142.
8. 남동걸(2004). 누정의 기능에 따른 누정시조의 특성. 시조학논총. 20: 70-96.
9. 노재현(2011). 팔경시와 고지도에 투영된 여주팔경의 전승양상.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14-27.
10. 노재현, 신상섭, 조찬문(2007). 팔경 구조분석을 통해 본 전통문화경관 조망권역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1): 11-23.
11. 박영주(2001). 관동팔경과 누정문학 유산. 도남학보. 제17집. p.161.
12. 신정일(2010). 신정일의 신 택리지. 서울: 타임박스.
13. 안계복(2005). 풍류의 정원 루·정·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150-157.
14. 양보경(2009). 상징경관으로서의 고지도 연구. 문화역사지리. 21(1): 95-104.
15. 여주군(1989). 여주군지.
16. 여주문화원(2004). 여강 한구비 산이 그림같으니: 옛 선조들이 남긴 여주의 제영.
17. 유호진, 우용순(2004). 누정 제영의 시공간적 분포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40: 65-69.
18. 윤경희(2004). 김창홍의 丹丘日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 41: 157-180.
19. 李叔遷(1979). 道教大辭典. 台北 巨流圖書公司.
20. 이진호(2008). 驪州 地域 八景詩의 傳統 考察. 여주대학교논문집. 16(2): 85-100.
21. 이한길(2009). 김극기의 '경포대' 한시 연구. 경포대와 경포호의 문화산책. 강원민속학 총서. 2: 87-121.
22. 李賢九 편역(1991). 驪江詩軸. 여주신문사.
23. 이홍숙(2010). 지명에서 생성된 전설들: 경남 김해지역 지명전설을 중심으로. 사립어문연구. 제17집: 135-162.
24. 장동수(2006). 경기도 여주군 팔대장림(八大長林) 복원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 78-84.
25. 장정용(2009). 강릉경포호 전설. 경포대와 경포호의 문화산책. 강원민속학총서. 2: 11-26.
26. 천경원(2006).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7. 조성문(2008). 팔대수와 청심루의 문화생태적 고찰: 한시를 중심으로, 팔대수·청심루·양암 복원을 통한 문화생태자원의 발굴과 보전방향 워크샵 자료. 여주의제 21.
28. 최승순(1989). 강원도 누정 고찰. 강원문화논총. 강원대 출판부. p.64.
29. <http://blog.daum.net/kjga79/6045990>
30. <http://cafe.daum.net/yeoju56/5MjE/113?docid=1EL5D5MjE11320081216172504&q=%C3%BB%BD%C9%B7%E7%C5%CD%20%BD%5%A8%A4%BB%E7%20%B5%BF%B4%EB>
31. http://kyujanggak.snu.ac.kr/MOK/MOK_NODEVIEW.jsp?setid=60010&pos=0&type=MOK&stype=list&subtype=sm&class=AL&cn
32. <http://land.culturecontent.com/contents.asp?cid=2&doc=02>
33. <http://tja49.tistory.com/116>
3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252
35. http://www.yeojufocus.co.kr/sub_read.html?uid=3043§ion=scf5§ion2

원고접수: 2011년 5월 2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1년 5월 20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